

2008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 2008년도 정부예산확보목표 3조 6,279억원 잠정 설정 -

충남도는 2월 16일 道廳대회의실에서 道간부와 시군기획실장, 산하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순기를 1년 앞당겨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민선출범 이후 처음으로 2월에 시책 구상 및 국비예산확보계획 보고회를 갖는 등 발빠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道의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산하단체장을 시책구상보고회에 처음으로 참석시켜 도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격의 없는 토론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4기 3차년도(2008)」를 맞아 도정의 경쟁력제고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 되었다.

2008년도 시책구상으로 제시된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문화·관광분야 〉

- ▶ 한·중·일 등 범 백제권 교류강화 및 백제역사 문화도시 추진
- ▶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 ▶ 大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2010 충남방문의 해」 유치
- ▶ 섬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추진
- ▶ 현대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난 체험마을 조성 등

〈 경제분야 〉

- ▶ 외국인 투자기업 「Home Doctor제」 운영
- ▶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CEO」 전용주거마을 조성
- ▶ 지역경제 정책의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지역경제 분석센터」 설립 운영
- ▶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기업애로 콜(call)제」 운영 등

〈 주민안전 분야 〉

- ▶ 합동 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 재난취약 가구(8,362개소) 안전 확보
- ▶ 독거노인 등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500가구, 연차적 확대)
- ▶ 도서별 「119 나르미션」지정(어선71척), 응급환자 신속이송 등

〈 복지·환경분야 〉

- ▶ 청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한 「영상전화기」 확보 보급(228대)
 - 도내 16개 수화통역센터를 연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 21C 전국 모델형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 ▶ 도청 이전지 「환경시설 종합처리」 시스템 구축
- ▶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안전급수 품질인증제」 도입
- ▶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구성·운영(유관단체 20명 내외)

〈 농림수산분야 〉

- ▶ 충남쌀 전국 최고로 육성키 위한 생산기술 및 경영비 절감 추진
- ▶ 농업경영전문CEO 육성을 위한 「신지식 학사농업인」 육성
- ▶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직 거래액을 「毎年 1천억씩」 증액
 - 산지유통센터(APC) 지속 확충,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확대
-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등으로 「농수산물 수출 4억\$」 달성 등

〈 건설교통분야 〉

- ▶ 수려한 경관보존을 위한 「충남경관 기본계획」 수립

- ▶ 공장 건축허가 「전담 도우미제」 실시
-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저상버스 도입)
- ▶ 「행정도시~공주간 경전철」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
- ▶ 대산~이원간(4km, 접속도로 포함) 교량건설 추진 등

〈 일반행정 분야 〉

-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술도민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 사업별 성과에 따른 「예산차등지원 시스템」 도입
- ▶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인터넷 포탈시스템」 구축
- ▶ 청구인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年1회 이상 시군 개최 등이다.

이번에 보고된 시책구상 사업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등 심층 자문을 받아 시책으로 확정하고 국비 등을 확보, 본격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도의 2008년도 국비예산 확보목표액은 2007년도 확보액 3조 4,571억원보다 5%가 증가된 「3조 6,279억원」으로 잠정 설정하였다.

주요 확보대상중 계속사업으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건설 2,566억원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 611억원 ▲장항선 개량 2,806억원 ▲보령신항 건설 50억원 ▲대산항 건설 300억원 ▲탕정TC·천안·장항산단 진입도로건설 850억원 ▲국도 4차로 확포장(42지구) 3,222억원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가고싶은 섬조성 22억원 ▲해양휴양관광지 조성 70억원 ▲지방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187억원 등이다.

충남도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월 1회 국비확보추진상황 보고회와 함께 「국회의원 초청 도정설명회」 등 영향력이 많은 각계 인사와 연대를 강화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도, '기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 기업인 100여명 참석, 도 중소기업지원시책 등 설명 -



충남도는 3. 9일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자치 단체장, 도의원, 기업인 연합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의 경영혁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인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충남도는 '2007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충북 교수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사관계 구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 교수는 특강에서 노사협력은 어느 한 쪽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확인하여, 그 목표를 공동으로 성취할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협력적 노사관계의 목표는 노사관계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산업평화적 이념의 정립,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의 실현, 노사관계의 안정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 정부부지사는 이완구 도지사를 대신한 축사에서 "우리는 10년전 IMF를 극복하고 오늘날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으며, 충남은 지난 '90년 이후 연평균 31%의 높은 수출성장세를 유지하여 400억불을 돌파하는 신화를 창조했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업인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선진국 진입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道, 21세기 문화의 시대 맞아 발전방안 모색 —



충남도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가장 오고 싶고, 만족 할 수 있는 충남 건설’을 위해 지난 3. 2 일 청양군청 회의실에서 道, 시·군 문화·관광·체육분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관광국의 올해 업무계획과 내년 도 시책구상 설명에 이어 각 시·군별 2007년도 업무 계획 보고와 건의사항을 듣고 도와 시·군이 함께 해

야할 시책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으며 道는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문화관광 시책에 반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발전으로 충남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의 역량강화,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관광분야에서는 특성화된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수도권을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 강화와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해 체육 강도의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금번 토론회에서 문화관광 전문가인 변상현 前충남대교수의 ‘외부인사가 바라본 바람직한 충남의 문화관광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은 “앞으로 충남의 힘은 문화관광분야에서 발휘 될 것이라며, 지방화시대 우리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전문가의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충남도가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충남도 도서개발사업 54억 투입

- 보령시 원산도 등 10개 도서 복지회관 건립, 도로 확·포장 등 지난해보다 두배 넘는 28억원 증가 -

충청남도는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올해 보령시 원산도 등 10개 도서에 54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건립, 도로 확·포장사업, 선착장·방조제·방파제 정비 등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보령시 원산도 외 5개 도서에 43억7,500만원을 들여 복지회관 건립 1개소, 도로 확·포장사업 5개소 ▲서산시 웅도에는 3억원을 들여 방조제 1개소를 정비하고, ▲홍성군 죽도에는 3억원을 들여 선착장 정비와 도로포장 1개소를 실시한다.

▲태안군 외도에는 1억4,300만원을 들여 방파제 보수 1개소와 ▲당진군 대난지도에는 3억원을 들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올해는 2차 10개년 계획의 마무리 되는 해로 지난해 보다 두배가 넘는 28억원이나 증가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내년부터는 제3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도서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 제정을 위한 설명 및 민의수렴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3. 7일 충청도청에서 충청지역 경제계 인사와 상공인, 언론인,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위 일자리창출 소위원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인 가칭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법률안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종찬 고려대 교수가 ‘대전, 충남·북지역의 투자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일자리창출 소위원장 권경석 국회의원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투자 활성화’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 후, 김용남 충남발전연구원장,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박건옥 충청투데이 주필 등 5명의 패널이 일자리창출과 지방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하였다.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인 권경석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 경제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비수도권 지방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법률안에 구체화 하고자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꽃박람회 기본계획 협의·검토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충남도는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계획에 따른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3. 8(목)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워크숍(Workshop)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도 최민호 행정부지사와 지난 2월초 공식출범한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임직원, 태안군 관계자, 2002년도 꽃박람회 개최당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실내·외 연출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꽃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른 현안과제 등을 집중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꽃박람회의 성공개최로 인해 그 동안의 노하우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기는 하나, 2009년도 꽃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9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꽃박람회 개최지의 현지 기반시설 여건 등 세밀한 현황분석과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모색 했다.

본 워크숍을 시발점으로 박람회 타당성 분석 등 2007. 6월 말까지 기본 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회장조성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2008년부터 토목, 조경, 화훼, 건축, 통신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번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도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서해안 지역의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원

- 제1회 특별강의 실시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정보공유를 위하여 2월 22일(목), 16:00~18:00까지 연구원 회의실에서 직원 30여명이 제1회 특별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김영표 국토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의 “연구 잘 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연구의 철학과 개념을 시작으로 연구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길
2. 철학 있는 연구
3. 연구의 구상
4. 전체를 꿰뚫는 연구방법론
5. 최소비용 최대효과 연구전략
6. 眞善美를 갖춘 보고서 작성
7. 연구의 홍보 전략

또한 이 날 특강을 경청하기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이 참석을 하였다. 향후 대전·충북개발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우리 연구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연구원 10분 토론마당 실시

충남발전연구원은 매주 월요일 주례회의가 끝난 후 자유로운 주제로 연구원이 자료를 준비하여 10분 토론마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부터 시작하여 3월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0분 토론마당을 통해 연구원들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학습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한다.

발표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0분 토론마당 실시 현황〉

2007. 3 현재

월	일	이 름	발 언 주 제	비 고
1월	16일	송두범	자치단체의 농촌개발 사례	
	29일	강영주	日 지자체 14년만에 첫 파산.... 유바리시 재정파탄	
2월	5일	박광배	한국경제 전망과 농업의 역할	
	12일	성태규	고령화시대 사회부문별 영향과 대응방향	
	26일	윤갑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천성 제고방안	
3월	5일	정종관	진보와 빈곤, 그리고 환경	
	12일	박철희	세계의 도시경쟁력	
	26일	신동호	일본의 신경제 성장 전략에 관한 소고	

「당진군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당진군(군수 민종기)은 2월 6일 오후2시 30분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지역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당진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군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진 철강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기본연구”, “도청신도시 및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당진군 연계발전 전략”, “당진시(市) 승격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당진군의 장기발전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과제가 모색되었다.

주제발표를 통하여 김갑성 교수(연세대학교)는 당진지역 철강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철강생산공동지원센터(가칭) 설립, 현대제철공업고등학교 설립, 철강관련 대학 캠퍼스 유치, 송산 일반 지방산업단지 배후주거지 개발, 현대 철강·자동차박물관 설립 등을 통해 산업·정주·교육기반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봉운·박철희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은 도청신도시 건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 당진군에 농업형태의 변화, 제조업 집적 및 클러스터의 형성, 관광산업의 성장, 종합병원 등 의료·복지기능의 강화, 수도권 및 대전권 산업의 이전,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교통량 증가와 인구유출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줄

이고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산업입지의 수용 및 관리, 주변 시·군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 성장정책을 마련하여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경득 교수(선문대학교)는 당진시(市) 승격의 필요에 대하여 인구(127.167명), 세대수(48,573명), 면적(664.78km²), 지방세 수입(1,220억원), 재정자립도(34.7%),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60.7%), 도시의 주거문화인 공동주택, 기업, 도시계획 등 제반여건이 모두 기준을 충족시켜 이미 시승격에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향후 시승격을 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행정체제 구축, 민선자치행정의 책임성과 주민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등 새로운 행정체제의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당진군의 지역주민, 사회단체, 공무원과 전국의 지역전문가들이 직접 토론을 통하여 당진군 현안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場이 되었으며, 또한, 21세기 중부권 물류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도시 당진군 건설을 위해 지역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도시권 설정과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 포럼

- 25일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통계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50여명 참석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 사단법인 지역발전포럼(공동대표 이영준)은 25일 오후2시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통계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권 설정과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능적 지역개념에 의한 지역통계의 개발과 활용, 광역대도시권역 설정과 도시와 지역통계의 활용,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수요와 개발과제

등 분야별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과제가 모색되었다.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능적 지역개념에서 지역통계를 대도시권역과 소규모권역 모두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통계가 개발되어 현재의 행정단위에 의한 지역통계 보다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책에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광역화되고 있는 도시 및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서울, 대구, 부산 울산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대도시권을 설정하였으며, 광역대도시권 설정에 있어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보다는 좀 더 미시적인 소지역단위의 통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생산기관과 통계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의 통계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단위 통계의 지역 통계화, 신규 개발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지침마련, 원시자료에 대한 공개, 예산지원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관련 전문가 및 통계 관련 시 군의 공무원이 직접 토론하여 지역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되었으며, 또한 이 포럼을 주관한 두 연구원과 (사)지역발전포럼에서는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내용을 모아 지역통계지원체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정책당국이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날 행사에 큰 의미를 두었다.

충남발전연구원,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적극 지원

-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와 자매결연 체결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이장 이춘복)는 20일 오후 2시 충남발전연구원장, 청양군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고 화산리를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교류 및 지원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원 기능이 계획수립에서 계획집행과정의 컨설팅 및 코칭(Coaching)기능으로 확대 보장되게 됨에 따라 금번 결연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화산리 농촌마을 활성화화를 위해 마을지도자 및 주민에 대한 교육, 마을환경 정비 및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방안 제공, 농특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정보제공,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평면 화산1·2리는 청양군 전체 16개 읍면 중에서 2006년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전체가구 수 79가구로 240명이 살고 있는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돼 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화산리는 이춘복 화산리 이장을 중심으로 청양군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 소유였던 화산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생활관 리모델링, 보건소 신축, 체험관주민생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살기 좋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산초등학교 폐교건물은 어두침침하고 주민들이 운동조차 할 수 없는 버섯농장 공간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주민생활관으로 변모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에 선정되기까지 투입된 노력과 소요비용은 10억원이 넘는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이러한 화산리의 열정적인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노력을 지원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금번 행사를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등과 협의 하에 추진하게 되었고, “어느 마을보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이 되어서 출향인들이 다시 찾는 활기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충남발전연구원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농촌 리더 육성과 전 도 차원의 확산을 위해 유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23일 오후2시 30분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계전문가,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공무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의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전략, ▲지역집중과 계절편중 관광패턴의 극복방안, ▲관광자원 특성별 상품 제공방안, ▲관광개발 변화와 방향, ▲홍보와 마케팅 발전방안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주제발표를 통하여 제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문화관광연구팀장은 충남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과제로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을 해소하

는 방안 마련과 계절적 패턴에 적합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시설과 공간개발 등 국내·외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은 그동안 충남관광이 지역과 계절에 편중되었다며 지역적 관광 집중현상 극복방안으로 내륙지역 중심의 신소재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도로망을 확충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벨트를 개발해 나가는 방안과 계절편중 극복방안으로 겨울바다 갯벌여행과 해수욕장 연날리기 등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방안 및 특산품을 할인하는 세일기간을 운영하는 충남관광 그랜드세일운영 등 계절별 특성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수 배재대학교 교수는 충남 관광자원의 특성별 관광상품 제공방안으로 관광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을 제공하며 충청권 광역연계상품 및 한국?일본?중국을 연결하는 광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충남의 관광개발 변화와 방향에 관하여 기존의 도시와 마을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개발하며 디자인을 통한 관광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 어메니티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등 지역 구성원간 연대하여 학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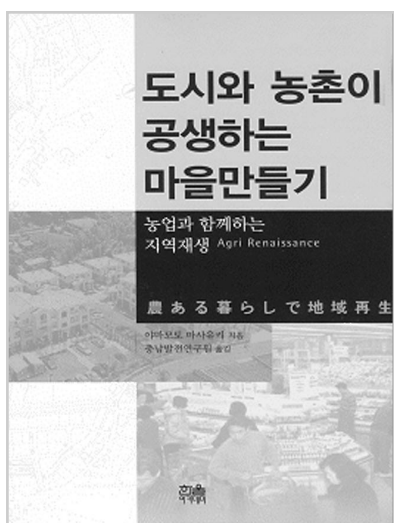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충남관광 홍보 마케팅 방안으로 거점 관광지나 초기 관광개발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 홍보로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계전문가, 도 및 16개 시군의 관광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학생들이 직접 토론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의지와 아이디어를 모으는 場이 되었다.

아울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충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번역서 발간1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마을만들기



한울아카데미 2006년 12월 출판

지금은 도시에서 농촌의 여유로움을 찾고, 농촌에서 도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도시·농촌 공생의 시대이다.

이 책은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교류를 위한 마을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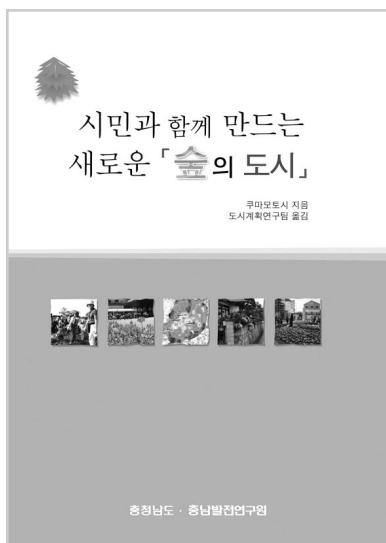
먼저 도시민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농촌주민의 의식과 토지이용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둘러본다.

그리고 도시농지를 활용하여 마을을 재생하는 방법, 농촌자원을 살려 마을을 재생하는 방법,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지역을 재생하는 방법 등을 차례로 설명한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과 계획가, 전문가, 도시와 농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 번역서 발간2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숲의 도시」



충남발전연구원 2007년 2월 출판

도시 속의 공원녹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휴게, 휴식, 여유와 활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도시림은 국토면적의 0.3%, 1인당 면적 6.56㎡로 WHO의 권고기준인 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도시녹화계약, 녹화계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시민과 함께 선진적 공원녹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쿠마모토의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공원녹지 확충과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 “2007년도 제 1차 확대기획조정분과회의 개최”

- 2007. 2. 21 11:00~12:00 / 충남발전연구원 5층 회의실 -



충남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기획조정분과위원 및 각분과 위원장, 충청남도 균형발전팀이 참석하는 가운데 2007년 제 1차 확대기획조정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2007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과 충남도청 부서이관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다루었으며, 도청 균형발전팀과 확대기획조정분과 위원들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7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안)과 2007년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안)이 심의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위원들의 주요 의견 내용으로는 “외부에서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의 여건 마련과 유치전략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조종현 위원), “한 해 동안 시행되었던 사업들을 책자화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강전근 위원) 등 올 한해에도 충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들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충남 농촌지역 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 워크숍

-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007년 2월 26일(월요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오후 16시부터 『충남 농촌지역 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목원대학교 디지털 경제학과의 박경교수가 충남지역의 농촌리더 육성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농촌리더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해외 및 국내에서의 농촌리더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의 농촌리더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후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진과 충청남도 농업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 담당자들(좌장: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원장)이 주제발표자인 박경교수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지역의 농촌 리더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제언과 실무차원의 운영방안 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앞으로 충남지역의 농촌 리더육성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물관리 통합·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물관리 대책본부' 설치 방안 모색 -



충청남도와 충남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 12일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물관리 대책본부' 설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의 '충청남도 물관리 대책본부 설치·운영방안' 한밭대학교 유병로 교수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청남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란 주제로 신성대 손무정 교수,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이상진 센터장, 푸른충남21 최진하 처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은 "그동안 관리 목적에 따라 분산 추진하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한 '물 관리 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반영 하여 그동안 4국 8과 12담당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위 업무로 분산 추진해오던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의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진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